

청소년기 여성의 가족폭력 피해에 관한 연구

김경희 · 권혜진 · 최미혜 · 정연강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A Study on the Female Adolescent's Experiences with Traumatic Domestic Violence

Kyung Hee Kim, Hye Jin Kwon, Mi Hye Choi and Yeon Kang Chung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Chung-Ang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s designed to contribute to the intervention of adolescent domestic violence by understanding the experience of the victims, better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series of interviews with 3 subjects singled out at each stage of research. With the permission of the subjects, the interviews were recorded and transcribed. The interviews lasted from two and a half to 8 hours.

The data were analyzed in the framework of grounded theory as mapped out by Strauss & Corbin (1990).

The major finding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

The core category was found to be the adaptation of "Jitnulim" or "Being suppressed".

The sub-categories identified in the process of grounded data analysis were 'roughness', 'wildness', 'driving', 'challenging', 'being strapped', 'being pressed', 'erupting', 'being horrified', 'being hardened', 'being connected', 'being seen', 'being helpful', 'being led', 'sprouting', 'being off', 'being cast out', 'shaking off', 'getting out', 'covering-up', 'waiting', 'ruling', 'common placeness', 'overcoming', 'getting united', 'falling behind', 'falling in', 'being mixed up', 'ruthlessness', 'estrangement', 'difficulty', 'being overwhelmed', 'feeling regretful', 'being pressed', 'hesitating', and 'shying off'.

These categories were again grouped into 11 categories including 'threatening', 'straightjacketing', 'alliance', 'phenomenon', 'pattern of support', 'system of support', 'challenging', 'calming-down', 'being relieved', 'being hardened and entangled', 'being entangled'.

The following four theses were confirmed on the basis of the repetitive relation:

1) If the episodes of violence are frequent and serious, with the resulting straightjacketing being stronger the victim's family relations are coherent and the subject's support pattern is highly mature. Concrete the responses to the straightjacketing resulted in a 'calming-down' which gradually relieved.

2) If the episodes of violence were frequent and serious, with the resulting straightjacketing being strong the victim's family relations and incoherent and the subjects supporter is immature but strong the support type is superficial and the responses to the straightjacketing result in a bouncing-off which gets entangled with the passage of time.

3) If the episodes of the violence are frequent and serious, the straightjacketing is strong, but the family relations are and the subject's support system is mature and strong the responses to the straightjacketing result in a calming-down which gets partly relieved but partly entangled

4) If the episodes of the violence are frequent and serious with the resulting straightjacketing

being strong, the victim's family relations are incoherent, the subject's support system is immature, and the support type is immature the responses to the straightjacketing result in a 'bouncing-off' which gets entangled and partly hardened with time.

I. 머리말

1. 연구의 필요성

가정은 가장 평화로운 안식처의 상징이며, 사랑은 토대로 형성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가정내에서 가족구성원간에 일어나는 폭력은 옛부터 흔히 있어온 현상이지만, 대부분은 가정내에서의 문제로 치부되어 피학대자는 물론 사회구조적 측면에서도 소홀히 여겨져왔다

최근들어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구타해온 아버지를 살해하는 사건등을 비롯하여 어려서부터 자신을 강간하고 학대해 온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여대생 사건등이 사회에 공개되면서 폭력가정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여론의 관심이 되고는 있지만 피해를 받고 있는 당사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강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아니라 배우자간 폭력의 간접적인 희생자라고 할 수 있는 폭력가정에서 성장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최근까지도 관심의 초점이 아니었다 일반적으로 이들에 대한 연구는 가족구성원간의 폭력이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되었다 (Alessi & Hearn, 1984. Carlson, 1984. Emery, 1982. Hilberman & Munson, 1978. Porter & O'Leary, 1980. Rosenbaum & O'Leary, 1981. Rutter, 1971. 노치영, 1988; 이병하, 1994. 김선남, 1994)

이들 연구에서 되풀이해서 드러나는 결과를 보면 배우자간 폭력이 어린이 및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위 또는 이상행동과 관련성이 있다는 것과 가정내 폭력에의 노출이 여아들보다 남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폭력가정에서 성장한 여성은 폭력에 적응하기 위하여 복종적이고 비굴해지면서 무기력하여 결단력이 상실된 우유부단한 상태로 절망과 체념속에서 폭력에 의한 노예상태가 된다고 한 보고(Hanks & Rosenbaum, 1977. Hilberman & Munson, 1978. Walker, 1978. 김광일, 1985)는 폭력가정에

서 성장하는 여아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측면을 나타내준다

가정폭력을 청소년의 관점에서 기술한 김(1995)의 연구에서도 폭력가정에서 성장하는 청소년인 경우 가정내 폭력에 대한 분노와 긴장을 공격적으로 발산하여 한차례 대립의 위험을 무릅쓰기 보다는 자신의 내부로 억압하여 내재화 시킴으로써 대인관계 및 사회적응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유교 문화권 특히 여성의 감정표출에 대해 극단적으로 억압적인 사회 문화적 전통을 가진 한국사회에서 살고 있는 여성, 그 중에서도 생리적, 정서적 문제들을 포함해 그들의 생애에서 가장 많은 문제를 경험하는 청소년기에 폭력가정에서 가족구성원간의 폭력을 목격하면서 성장하는 폭력가정 청소년의 경험을 규명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에 본 연구자는 폭력가정 청소년의 실제적 경험을 서술하고 분석하여 개념과 범주 그리고 관계유형을 밝히는 Strauss & Colbin(1990)의 근거이론 방법을 본 연구의 연구방법으로 채택하여 폭력가정 청소년의 경험을 규명해보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관점에서 폭력가정을 기술함으로써 간호사들이 드러나지 않은 폭력가정 체험 즉 감추어진 차원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 할 수 있도록 돕기위한 간호이론개발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본 연구에서 주로 살펴보고자 하는 의문은 폭력가정에서의 성장 경험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또한 연구대상인 청소년들은 부모간 폭력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러한 대처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이다

II. 문헌 고찰

1. 폭력가정

가정에서 일어나는 가족구성원간의 폭력은 우리에게

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가정은 비폭력적인 장소로 생각되기 쉬우나 실제로 가정내 폭력은 개인적인 고통을 넘어서서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점을 갖는다(심재근, 1984)

가정내 폭력에는 배우자학대, 어린이학대, 근친상간, 결혼속의 강간, 부모학대 등이 포함된다(권희순, 1989)

가정내 폭력중 아내구타란 아내가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아내에 대해 남편이 자행하는 신체적 및 정신적 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Brown et al, 1982)

여성들은 경제적으로 남성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문화, 종교적으로 구속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고립되어 가정의외에는 대안이 없고 사회적으로 인식되는 불명예와 타인에 대한 수치심, 학대자로부터 예상되는 폭력에 대한 두려움때문에 스스로 이 문제를 은폐시켜왔다(Germain 1984)

전통적으로 철저한 남성위주의 사회로서 가정내에서 여성의 지위가 매우 낮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아내구타는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심재근(1985)의 보고에 의하면, 결혼후 남편에게 맞은 경험이 있는 주부가 42~61%이었으며 25%의 주부가 발로 차이거나 물어 뜯기거나 주먹으로 맞았고 19%는 흉기로 맞았으며 4%가 칼이나 무기로 상처를 입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Canada여성의 경우 10%가 매해 구타 당하고 있으며, 미국여성은 10~50%가 구타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Germain, 1984)

아내구타에는 일정한 정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데, Walker(1978)는 이를 폭력주기라고 불렀다. 제1단계는 긴장-형성단계로서 욕설과 가벼운 폭행이 그 특징이다 이렇게 그 긴장이 높아져감에 따라 남편은 더 억압적으로 변하고 여자는 깊은 무력감에 빠진다 제2단계는 이렇게 높아진 긴장이 폭력적으로 폭발을 일으켜서 아내는 자살하거나 부상당하거나 또는 살해당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제3단계는 남편은 뉘우침을, 아내는 죄의식을 느끼는 단계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한 주기가 완성되고 새로운 주기가 시작된다

이러한 폭력주기에 따라 변화를 겪게되는 폭력가정의 자녀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유해한 환경속에 살고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가정내 폭력으로 부모 못지않게 큰 피해를 입고 있는것

이다

Rosenbaum & O'Leary(1981)은 폭력가정 자녀들이 받고있는 피해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1) 자녀들이 폭력의 가해, 피해 역할모형에 노출된다: (2) 자녀들은 가정내 폭력 뿐 아니라 결혼불화에도 노출된다. (3) 자녀들은 어머니의 상해에 대한 공포, 자신의 상해에 대한 공포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4) 자녀들은 부모 중 어느 한쪽 또는 양쪽으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받는다

2. 폭력가정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청소년기는 희망과 절망의 교차속에서 고민과 불행 을 함께 경험하는 가운데 인생의 눈을 뜨게되는 정서적 극중우의 시기이며, 동시에 양심과 충동의 갈등속에서 자아의식을 정립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충동과 갈등을 건전한 방법으로 적절히 해소 시키지 못할 때에는 주위환경에 대하여 심한 마찰을 보일 뿐 아니라 때로는 반항적이거나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는 시기이기도 하다 또한 더 많은것을 알고자하는 의욕과 호기심이 절정에 달하는 시기이며 주변에 있는 것이면 무엇이던지 동일시하고 많은것을 느끼고 경험하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주어진 환경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에는 예기치 않았던 부작용 현상을 보여주는 경우가 허다하다. 더우기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인구이동 그리고 세대간의 격차 등 사회구조의 변화와 전통가치관의 변화속에서 낡은것과 새것이 교차되는 격변과 시련의 시대를 사는 오늘날 젊은이들은 현실원망, 격차와 같은 욕구좌절로 인해 정서적 갈등과 불안 을 느끼고 있다(이길홍, 1982).

이러한 심리적 특성을 지닌 청소년들이 가정내 폭력에 오랫동안 노출됨으로써 나타나게되는 관찰 가능한 영향은 매우 다양하며 지속적이다

가정내 폭력을 목격함으로써 나타나게되는 관찰 가능한 행동으로는 위축, 가출, 파괴적행동, 공포, 야노증, 과다의존, 학교공포증, 신체적 불편감호소, 약물, 불면증, 틱 타인에 대한 폭력인정, 사회적 무력감, 자존심 저하 등이 있다(Hilberman & Munson, 1978; Hughes & Barad, 1983; Jaffe et al, 1986; Jones, 1988. Levinel, 1975. Rouse, 1984; Ulbricht & Huber, 1981. Westra & Martin, 1981)

가정내 폭력의 목격체험과 훗날 성인이 되어 폭력

의 가해자, 피해자가 되는 것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MacEwen & Barling, 1988. Parker & Schumacher, 1977. Post et al, 1981. Owens & Strauss, 1975. Rosenbaum & O'Leary, 1981).

이들 대다수의 연구에서는 폭력가정의 50% 이상이 결혼 전 성장 가정이 폭력가정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보다 더 높은 수치를 보여주는 연구결과도 있다 Roy(1977)는 폭력가정 남편의 경우 결혼 전 성장 가정이 81%가 폭력적이었고, 아내의 경우는 33%가 폭력적 이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밖에도 폭력목격 체험을 가진 아이들이 성인이 된 후 폭력, 특히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해서 더 큰 내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Ulbricht & Huber, 1981)

폭력을 피해 남편과의 관계를 청산한 경우도 많은 문제를 가진다. 밭서 또는 이혼이 자녀들에게 어려운 경험인 것은 오래전부터 인식되어져왔다(Emery 1982. Hetherington et al, 1979. Ledingham & Crombie, 1988. Wallerstein & Corbin, 1989. Wallerstein & Kelly, 1980. Zaslow, 1988, 1989)

이들 연구에서는 부모의 사망보다는 부모의 별거나 이혼이 자녀들에게 더 많은 갈등을 준다고 하면서 사회 인구학적 변인 중 부모와의 과거 또는 현재 별거 경험 여부와 별거 동기가 학생 청소년의 문제행동 유형변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부친과의 별거 경험은 청소년 자녀의 사회화 과정에 큰 장애를 초래하여 정서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III. 자료 수집 절차

1.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세명의 청소년들이었다 자료 수집기간은 1995년 1월부터 1995년 5월까지 이었다

근거이론 연구에서 대상자 선정은 연구자에 의해 사용되는 기본적 분석과정인 부호화 과정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데, 개방부호화 과정에서 사용하는 개방적 표본추출은 가능한 많은 범주를 찾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과 느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자 3명을 선정하였다

우선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자 대상자들은 모두 기꺼이 면담에 응해 주었으며, 이들의 허락을 받아 면담내용은 모두 녹음기에 녹음을 한 후 녹취록을 작성하여 자료화 하였다. 자료수집에 사용된 도구는 휴대용 녹음기와 현장노트였다

면담시간은 총 2시간 30분에서 8시간 이었으며, 첫 번째 만남에서는 관계형성에 주력하였고, 두 번째 만남부터 연구를 위한 면담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자료수집과 동시에 진행하였으며, 자료분석 결과는 다음 대상자에 대한 질문에 반영, 비교하였으며, 각 대상자에게 나타난 개념이나 다음 대상자에게도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위인과 상황이 무엇인지를 밝힐 수 있는 질문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면담을 계속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모두 청소년들이었으며, 연령은 만 16세부터 18세로 학력별로는 高1이 1명, 高2가 1명, 大1이 1명이었다 종교별로는 천주교가 두명이었고 나머지 한명은 무교이었다

2.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trauss & Corbin(1990)의 분석방법론을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의 자료분석단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첫 대상자와의 면담내용을 기록한 녹취록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개념들을 이끌어내고 이 개념들을 포괄하는 상위개념 즉 범주들을 찾아내는 개방코딩작업을 시행하였다.

2) 개방 코딩 과정에서 나타난 개념과 범주들을 고려해 둘째 이후의 대상자들에 대한 질문을 지속적으로 수정하며 면담을 계속하였다.

3) 이어 개방코딩과정에서 나타난 범주들을 한단계 더 추상화하여 상위범주들을 찾아내고 이들을 Strauss & Corbin(1990)의 분석방법론에 따라 상황, 맥락, 중재상황, 전략, 결과로 분류한 다음 이들의 속성과 정도의 영역을 매개로 서로 연결하는 연결코딩 작업을 실시하였다.

4) 연결코딩과정에서 모든 범주와 연결되어있는 중심적인 범주 즉 핵심범주를 찾아낸 다음, 이 핵심범주가 기술하는 현상 즉 중심현상을 중심 축으로 각 범주들이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가를 고찰하였다 각 범주

간의 관계유형을 밝히기 위해 중심현상의 속성과 정도의 영역, 맥락을 형성하는 각 범주의 속성과 정도의 영역 그리고 중재상황을 형성하는 범주의 속성과 정도의 영역사이에 있을 수 있는 모든 상관관계를 정형화하고 이를 근거자료속의 사례와 대조해 어떤 관계 유형이 존재하는가를 확인하는 자료의 체계화 작업을 시행하였다

5) 이어 중심현상과 인과적 관계, 맥락, 중재상황, 그리고 결과와 전략의 속성사이의 가설적 관계를 정도의 영역을 함수로 진술의 형태로 기술하는 관계진술을 제시하고 중심현상과 각 범주간의 관계개요를 서술적으로 기술하고 이를 토대로 관계유형을 검증하기 위한 가설적 진술 즉 가설적 관계개요를 제시하는 등 선택코딩작업을 계속하였다

6) 이상에서 서술한 자료의 체계화, 관계진술, 그리고 가설적 관계개요의 제시등 일련의 자료분석 결과와 근거자료를 지속적으로 비교해 각 범주간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관계를 정형화하는 유형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해로 제시하는 이론 코딩을 시행하였다

7)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

IV. 자료분석 결과

본 장에서는 근거자료 분석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한다

1. 근거자료 분석에서 나타난 개념 및

개념의 범주화

1) 개념

근거자료를 분석한 결과 나타난 개념은 157개로서 다음과 같다

‘과음’ ‘폭주’ ‘만취’ ‘방탕’ ‘난잡’ ‘파괴’ ‘욕설’ ‘학대’ ‘구타’ ‘격분’ ‘고함’ ‘싸움’ ‘정’ ‘책망’ ‘억지’ ‘비난’ ‘모욕’ ‘질투’ ‘저주’ ‘의심’ ‘감시’ ‘간섭’ ‘들쭉심’ ‘쫓아다님’ ‘꼬집어냄’ ‘들추어냄’ ‘성격차이’ ‘견해차이’ ‘궁핍’ ‘무직’ ‘무능’ ‘숨막힐듯함’ ‘깨질듯함’ ‘찢어질듯함’ ‘답답함’ ‘중오심’ ‘미움’ ‘가출충동’ ‘자살충동’ ‘짜증남’ ‘싫음’ ‘무서움’ ‘두려움’ ‘공포심’ ‘예민함’ ‘긴장함’ ‘질겁함’ ‘가까움’ ‘멈’ ‘빈도’ ‘강도’ ‘통함’ ‘친함’ ‘믿어줌’ ‘붙들어줌’ ‘들어줌’ ‘알아줌’ ‘도와줌’ ‘절대자’ ‘종교지도자’ ‘스승’ ‘선배’

‘형제’ ‘또래집단’ ‘고함’ ‘울음’ ‘폭소’ ‘방가’ ‘떠듬’ ‘늠’ ‘배회함’ ‘가출’ ‘무단결석’ ‘말썹부림’ ‘몰려다님’ ‘유혹장출입’ ‘걸치장함’ ‘음주’ ‘흡연’ ‘자살시도’ ‘자기혐오’ ‘자기학대’ ‘정안줌’ ‘무뚝뚝함’ ‘방어함’ ‘무신경’ ‘무관심’ ‘현실도피’ ‘현실부성’ ‘각함’ ‘침묵’ ‘포기함’ ‘잊어버림’ ‘숨김’ ‘모방함’ ‘이중성’ ‘노력함’ ‘애씀’ ‘독함’ ‘희망가짐’ ‘자기최면’ ‘끈질김’ ‘참음’ ‘분발함’ ‘침착함’ ‘태연함’ ‘땀땀함’ ‘절제함’ ‘자기만족’ ‘자기긍정’ ‘자기중심’ ‘자기본위’ ‘홀로서기’ ‘안도감’ ‘다행감’ ‘대견함’ ‘편안함’ ‘습관화됨’ ‘별일아님’ ‘신경안씀’ ‘탄련됨’ ‘유대감’ ‘화합’ ‘챙김’ ‘몽킴’ ‘성적부진’ ‘학업불성실’ ‘유혹’ ‘음주’ ‘흡연’ ‘양가감정’ ‘역할혼돈’ ‘가족애결핍’ ‘가족간대화결핍’ ‘학교부적응’ ‘거리감’ ‘공감대결’ ‘피곤함’ ‘귀찮음’ ‘괴로움’ ‘지겨움’ ‘부담감’ ‘쌓임’ ‘길망감’ ‘자포자기’ ‘무용지불감’ ‘원망함’ ‘타함’ ‘못마땅함’ ‘안타까움’ ‘공포증’ ‘잘놀람’ ‘겉따움’ ‘남자거부감’ ‘불신감’ ‘친밀기피’ ‘대화기피’ 등으로 나타났다

2) 하위범주

근거자료를 분석한 결과 나타난 개념들을 포괄하는 하위범주는 35개로서 다음과 같다

‘거칠음’ ‘사나움’ ‘몰아침’ ‘맞버림’ ‘쪼들림’ ‘갑갑함’ ‘북받침’ ‘끔찍함’ ‘굳어짐’ ‘뻣어짐’ ‘보여짐’ ‘힘이됨’ ‘이끌림’ ‘뿔어냄’ ‘빚나감’ ‘내던짐’ ‘뿌리침’ ‘헤어남’ ‘덮어둠’ ‘기다림’ ‘다스림’ ‘변변함’ ‘당해남’ ‘합쳐짐’ ‘뒤쳐짐’ ‘빠져듦’ ‘뒤섞임’ ‘아멸참’ ‘걸들음’ ‘힘들음’ ‘꺾여짐’ ‘서운함’ ‘죄여짐’ ‘주저함’ ‘꺼림함’ 등이었다

3) 상위범주

근거자료 분석과정에서 나타난 35개의 하위범주를 다시 상위범주로 통합하면 11개로서 다음과 같다

‘위협’ ‘짓눌림’ ‘유대’ ‘양상’ ‘지지체계’ ‘지지형태’ ‘맞받아침’ ‘가라앉힘’ ‘누그러짐’ ‘엷혀매임’ ‘몽쳐맷힘’ 등이다

2. 근거이론 패러다임에 따른 범주 및 과정분석 (표 1 참조)

1) 폭력가정 청소년의 경험에 관한 패러다임 모형

Strauss & Corbin(1990)에 따르면 근거이론의 개발과정에서 연결코딩의 핵심을 이루는 패러다임 모형의 개발은 개방코딩 과정에서 나타난 범주를 각각 인과적 조건, 중심현상, 맥락, 중재상황, 전략, 결과 등으로 분류하고, 이들이 중심현상을 축으로 어떻게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를 밝히는 작업이다

[인과적 조건] 거칠음, 사나움, 몰아침, 맞버림, 쪼들림

근거이론에서 인과적 조건이라함은 현상의 발생 또는 전개, 발전과 인정한 인과적 관계에 있는 선행사건 다시 말해 원인이 일어나도록 만든 모든 원인을 일컫는다

본 연구에서 근거자료를 분석한 결과 “거칠음”, “사나움”, “몰아침”, “맞버림”, “쪼들림” 등의 범주가 중심현상 “짓눌림”을 일으키는 원인 즉 인과적 조건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과적 조건이 대상자에게서 “짓눌림”을 일으키는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방탕함과 난잡함으로 인한 너시분한 상황 분개하여 난폭한 행동으로 폭발하는 상황 퍼붓고 책잡아서 속도 못쉬게 몰아부치는 상황, 성격차이 견해차이로 엇갈려서 서로 맞버리는 상황, 궁핍과 군색함으로 쪼들리는 상황에서 대상자는 “짓눌림”을 경험한다

이상에서 열거한 다양한 상황들이 모두가 “짓눌림”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인과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강도와 빈도라고 하는 두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정도의 범위는 각각 강-약 짚음-드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심현상] 짓눌림

중심현상이란 중심적 관념 또는 사건으로서 대상자가 일련의 전략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대상 또는 목표를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폭력가정 청소년들이 무엇을 경험하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는 것들과 관련된 모든 일련의 행동이 중심현상 “짓눌림” 현상을 중심축으로 전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이 “짓눌림”이 중심현상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이다.

근거자료를 분석한 결과 “짓눌림”이란 인과적 조건에 의해 대상자의 내면속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서 대상자의 사회적 맥락 그리고 그가 처한 중재상황과의 상호작용을 거치면서 다양한 양상으로 변형, 발전되고 해결되어 나가는데, 연결코딩의 과정에서 중심현상 “짓눌림”은 모든 범주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협으로 인해 발생한 “짓눌림”은 여유없이 답답한 심정에서 북받쳐오름과 끔찍함을 경험하면서 온 몸이

경직되는 상태로 나타났다.

“짓눌림”의 속성은 강도, 기간, 빈도이며, 정도의 영역은 강-약, 장-단, 짚음-드뎀이다

[맥락] 유대, 양상

맥락이란 현상이 발생하는 일련의 구조적 장으로서 속성과 정도의 영역으로 정의 되는데, 본 연구에서 근거자료를 분석한 결과 “짓눌림”의 생성-표출-변형 등 모든 전개과정이 대상자 가족구성원간의 서로 아끼고 보살피면서 맺어지는 가족에 즉 가족구성원간의 유대와 폭력행위자의 공격행동양상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전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맥락으로서의 유대란 가족 구성원이 서로 뭉쳐서 맺어지는 거리를 일컫는 것으로서 가까움, 멍둥이 이에 속하게 되며, 양상이란 폭력행위자의 행동양상에 따라 대상자가 영향을 받는 것을 일컫는 것으로 빈도 강도 등이 이에 속하게 되는데, 본 연구의 근거자료를 분석해보면 대상자 가족구성원간의 유대정도에 따라서, 또한 폭력행위자의 공격행동 양상에 따라서 “짓눌림”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전략이 달라지고 나타나서 결과도 달라진다

이상에서 열거한 유대 및 양상은 “짓눌림”의 표현을 결정하는 기본적인 틀이라는 점에서 맥락을 형성한다 거리, 빈도, 강도 등의 속성을 가지며, 정도의 영역은 각각 가까움-멍, 짚음-드뎀, 강-약이다

[중재상황] 지지체계, 지지형태

중재상황이란 현상과 관련된 광범위한 구조적 상황을 말하며, 주어진 상황 또는 맥락 속에서 전략을 추진하거나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범주를 일컫는다

“짓눌림”의 생성-표출-변형 등 모든 전개과정이 대상자가 누구를 의지하고 기대는가 하는 즉 대상자가 받는 지지체계 및 지지형태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재상황으로서의 지지란 대상자가 자신에게 힘이 되어주고 이끌리는 상대에게 자기내면을 표현하고 털어놓으면서 그 상대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을 일컫는 것으로 통합, 친함, 믿어줌, 들어줌, 알아줌, 도와줌, 붙들어줌, 절대자, 종교지도자, 스승, 선배, 형제, 또래집단 등이 이에 속하게 되는데, 대상자 지지체계의 성숙도가 높고 지지형태의 수준 및 강도가 높을 때에는 “짓눌림”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보다 가라앉힘으로의 선택이 촉진되고 반대로 맞받아침으로의 선택은 억제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대상자 지지체계의 성숙도가 낮고 지지형태의 수준 및 강도가 낮을 때에는 "짓눌림"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맞받아침으로의 선택이 촉진되고 반대로 가라앉힘으로의 선택이 억제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처럼 대상자의 지지체계 및 지지형태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전략을 억제하거나 촉진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구조적 상황이라는 점에서 중재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지체계 및 지지형태의 속성은 성숙도, 수준, 강도이고 정도의 영역은 각각 높음-낮음, 강-약이다

[전략] 뺨어냄, 빗나감, 내던짐, 뿌리침, 헤어남, 덮어둠, 기다림, 다스림

전략이란 일정한 상황 또는 주어진 맥락 속에 존재하는 현상을 관리하거나, 대응하려는 개인 또는 집단의 작용/반작용을 가리킨다. 작용/반작용은 몇가지 특성을 가지는데, 첫째 전략은 과정속에 나타나고, 발전적 성격을 가지며 순서, 이동, 변화의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다 둘째 작용/반작용은 목적적 또는 목표 지향적이어서 현상에 대한 전략의 형태로 나타난다 셋째 실현되지 않은 작용/반작용도 실현된 작용/반작용과 똑같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근거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상자 지지체계의 성숙도 및 지지형태의 수준이 낮고 지지형태의 강도가 약하면서 자신을 자제할 수 있는 자기조절

이 약할때에는 물려다님, 가출, 무단결석, 말썽부림, 자살시도, 유흥장출입등의 행동과 같이 직접 맞받아치는 쪽으로 "짓눌림"을 표현하게 되고, 대상자 지지체계의 성숙도 및 지지형태의 수준이 높고 지지형태의 강도가 강하면서 자신을 자제할 수 있는 자기조절이 강할때에는 자신의 충동성을 억제하면서 한걸음 뒤로 물러나 무관심, 자기최면, 잊어버림, 희망가짐, 침착함, 자기만족, 참음, 등과 같이 가라앉히는 쪽으로 "짓눌림"의 상황에 대해서 반응하게 된다

이상의 모든행동은 모두 일정한 상황또는 맥락속에 주어진 현상 즉 "짓눌림"을 관리하거나 또는 이에 대응하려는 대상자의 작용/반작용이라는 점에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심현상인 "짓눌림"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 "뺨어냄" "빗나감" "내던짐", "뿌리침" "헤어남", "덮어둠", "기다림" "다스림" 등의 범주가 존재하는것으로 나타났다

[결과] 변변함, 당해냄, 합쳐짐, 뒤쳐짐, 빠져둠, 뒤섞임, 아멸참, 겁들음, 힘들음, 꺾어짐, 서운함, 죄어짐, 주저함, 꺼리낌

중심현상인 "짓눌림"이 전략이라는 행동을 통해 변형되는 과정이 곧 결과이다

근거자료를 분석한 결과 나타난 범주중 결과에 속하는 것으로는 "변변함", "당해냄", "합쳐짐", "뒤쳐짐", "빠져둠", "뒤섞임" "아멸참" "겁들음", "힘들음",

근거이론 패러다임에 따른 범주

개 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패러다임
과음, 폭주, 만취, 방탕, 난잡	거칠음		인과적 조건
파괴, 설, 학대, 구타, 격분, 고함, 싸움, 주장	사나움		거칠음
책망 억지, 비난, 모욕 질투 저주 의심, 감시, 간섭, 들쭉심 쫓아다님 꼬집어냄	붙어침	위협	사나움
들추어냄			몰아침
성격차이, 견해차이	맞버림		맞버림
궁핍, 무직, 무능	쪼들림		쪼들림
숨막힐 듯함 깨질듯함, 찢어질 듯함 답답함.	갑갑함		
중요심 미움 가출충동, 짜증남 싫음, 자살충동	복받침	짓눌림	중심현상
무서움, 두려움, 공포심	끔찍함		짓눌림
예민함, 긴장함, 질겁함	굳어짐		
가까움 범	뺏어짐	유대	맥락 유대
빈도, 강도	보여짐	양상	양상
통합, 친함, 믿어줌, 붙들어줌, 들어줌, 알아줌 도와줌	힘어됨	지지형태	중재상황
절대자 종교지도자 스승 선배, 형제, 또래집단	이끌림	지지체계	지지

개 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패러다임
고함 울음, 폭소, 방가 떠듬	뿔어냄		
늪, 배회함 기출 무단결석 말썽부림, 물려다님, 유흥장 출입, 걸치장함, 음주, 흡연	빛나감	맞받아침	
시살시도 자기혐오 자기학대	내던짐		
정안춤 꾸벅뚱함 방어함	뿌리침		전략 맞받아침
무신경, 무관심 현실도피 현실부정	헤어남		가라앉힘
삭힘 침묵 포기함, 잊어버림 숨김 도방함, 이중성	덮어둔	가라앉힘	
노력함, 애씀, 독함 희망가짐, 자기취면 끈질김 참음, 분발함	기다림		
침착함 태연함, 멋뻐함 절제함, 자기만족, 자기긍정, 자기중심, 자기분위, 홀로서기	다스림		
안도감 다행감 대견함, 편안함	변변함		
습관화됨 별일아님, 신경안씀 단련됨	당해냄	누그러짐	
유대감 회합 챙김 뭉침	합쳐짐		
성적부진 학업불성실	뒤쳐짐		
유흥, 음주 흡연	빠져들		
양가감정 역할혼논	뒤섞임		
가족애걸림 가족간 대화결핍	야멸참	엷혀매임	결과 누그러짐
학교부적응 거리감 공감대 결여	걸들음		엷혀매임 뭉쳐맺힘
피곤함, 귀찮음 괴로움 지겨움, 부담감, 쌓임	힘들음		
절망감, 자포자기, 무용지물감	직여짐		
원망함, 닷함, 못마땅함 안타까움	서운함		
공포증 잘놀람 겁많음	죄여짐	뭉쳐맺힘	
남자 거부감 불신감	주저함		
친밀기피 대화기피	꺼려함		

표 2 인과적 조건의 속성과 정도의 영역

범 주	속 성	정도의 영역
거칠음		
사나움	강도	강-약
몰아침		
맞버림	빈도	잦음-드물
쫓들림		

표 3. "짓놀림"의 속성과 정도의 영역

범 주	속 성	정도의 영역
	강도	강-약
짓놀림	기간	장-단
	빈도	잦음-드물

"죄여짐", "서운함", "죄여짐", "주저함", "꺼려함"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유대, 양상의 속성과 정도의 영역

범 주	속 성	정도의 영역
유대	거리	가까움-뒀
양상	빈도	드물-잦음
	강도	강-약

2. 과정 분석

Strauss & Corbin(1990)에 따르면 현상은 시간의 흐름을 따라 전개되는 일련의 선후관계의 형태로도 관찰이 가능한데, 본 연구에서 중심현상으로 나타난 "짓놀림"은 시간적으로 생성-표출-변형 등의 과정을 거치며 전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정분석은 중심현상을 발생에서 소멸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시공연속체 즉 시간의 흐름을 따라 관찰하는 보조적 분석도구이다. 즉 시간의 궤적위에 존재하는 작용/반작용의 유형을 드러내려는 시간적 성

격의 분석이다

1) "짓눌림"의 생성과정

대상자는 가족구성원간의 폭력을 목격하면서 반복되는 공포감과 긴장감에 질력이 나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가정이라고 하는 테두리안에서 어쩔 수 없이 보고, 참고 견뎌내야 하는 과정을 통하여 반항하고 싶은 충동은 끓어오르지만 실행할 수 없으므로 결국 짓눌린다

2) "짓눌림"의 표출과정

"짓눌림"이 생성되면 대상자는 "짓눌림"을 표출할 돌파구를 선택한다 위협적인 자극에 의해 초래되는 감정들에 대처할 준비를 하는것이다

대상자 가족구성원의 유대와 가정내 폭력양상은 "짓눌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고 대상자 주변의 지지체계 및 지지형태는 대상자가 "짓눌림"을 표출하는 전략에 영향을 미친다

이와같은 상호작용을 통하여 대상자는 "짓눌림"을 의부세계로 맞받아치거나 자기 내부세계로 가라앉힌다.

3) "짓눌림"의 변형과정

"짓눌림"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성-표출-변형의 과정을 거치는 시간적 현상이다

여기에서 언급된 변형은 '누그러짐'과 같은 긍정적인 변형뿐만 아니라 '덜허매임', '몽쳐맷힘'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변형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결과의 발생과 함께 "짓눌림"이라고 하는 하나의 현상에 대한 변형과정은 마무리된다

여기서 나타난 결과는 주어진 맥락과 중재상황의 상호작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3. 자료의 가설적 정형화, 관계 진술 및 가설적 관계 개요

1) 자료의 가설적 정형화

자료의 정형화란 관계유형을 찾아내기 위한 유형분석 과정의 첫 단계로서 각 범주간의 가설적 관계유형을 정형화하는 작업이다 즉 중심현상의 속성과 정도의 영역, 맥락을 형성하는 각 범주의 속성과 정도의 영역 그리고 중재상황을 형성하는 범주의 속성과 정도의 영역사이에 있을 수 있는 모든 상관관계를 정형화하고 이를 근거자료속의 사례와 대조해 어떤 관계유형이 존재하는가를 확인 하였다

본 연구에서 근거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심현상은 "짓눌림"으로 나타났고, 맥락인 유대와 양상은 가까움, 멀, 빈도, 강도등의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재상황은 지지체계와 지지형태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근거자료속에 그 속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유대및 양상과 중심현상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가설적관계와 지지체계및 지지형태와 중심현상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가설적 관계를 정형화하면 아래와 같다

- (1) 짓눌림이 강하고 가족구성원간의 거리가 가까운 경우
- (2) 짓눌림이 강하고 가족구성원간의 거리가 먼 경우
- (3) 짓눌림이 약하고 가족구성원간의 거리가 가까운 경우
- (4) 짓눌림이 약하고 가족구성원간의 거리가 먼 경우
- (5) 짓눌림이 강하고 폭력의 강도가 강한 경우
- (6) 짓눌림이 강하고 폭력의 강도가 약한 경우
- (7) 짓눌림이 약하고 폭력의 강도가 강한 경우
- (8) 짓눌림이 약하고 폭력의 강도가 약한 경우
- (9) 짓눌림이 강하고 지지체계의 성숙도가 높은 경우
- (10) 짓눌림이 강하고 지지체계의 성숙도가 낮은 경우
- (11) 짓눌림이 약하고 지지체계의 성숙도가 높은 경우
- (12) 짓눌림이 약하고 지지체계의 성숙도가 낮은 경우
- (13) 짓눌림이 강하고 지지형태의 수준이 높은 경우
- (14) 짓눌림이 강하고 지지형태의 수준이 낮은 경우
- (15) 짓눌림이 약하고 지지형태의 수준이 높은 경우
- (16) 짓눌림이 약하고 지지형태의 수준이 낮은 경우
- (17) 짓눌림이 강하고 지지형태의 강도가 강한 경우
- (18) 짓눌림이 강하고 지지형태의 강도가 약한 경우
- (19) 짓눌림이 약하고 지지형태의 강도가 강한 경우
- (20) 짓눌림이 약하고 지지형태의 강도가 약한 경우

2) 관계 진술

관계진술은 근거자료의 분석과정에서 드러난 중심현상과 인과적 관계, 맥락, 중재상황, 그리고 결과와 전략의 속성 사이의 가설적 관계를 정도의 영역을 함수로 진술의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근거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심현상은 “짓눌림”, 인과적 관계는 “거칠음”, “사나움”, “몰아침”, “맞버림”, “쪼들림”, 맥락은 “유대” “양상”, 중재 상황은 “지지체계” “지지형태”인 것으로 나타났고, ‘짓눌림’을 표현하는 전략으로는 맞받아침 가라앉힘이 있었으며, 결과는 누그러짐 얽혀매임, 뭉쳐맷힘이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범주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관계진술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을 근거자료의 사례와 지속적으로 대조함으로써 관계유형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1) 대상자가 인식하는 위협의 강도가 늘 수록 “짓눌림”이 강해질 것이다

(2) 가족구성원간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짓눌림”은 가라앉힘으로 표현되고, 멀 수록 맞받아침으로 표현될 것이다

(3) 폭력의 빈도가 드물고 강도가 약할수록 “짓눌림”은 가라앉힘으로 표현되고, 폭력의 빈도가 잦고 강도가 강할수록 “짓눌림”은 맞받아침으로 표현될 것이다

(4) 지지체계의 성숙도가 높을수록 “짓눌림”은 가라앉힘으로 표현되고, 낮을수록 맞받아침으로 표현될 것이다

(5) 지지형태의 강도가 강하고 수준이 높을수록 “짓눌림”은 가라앉힘으로 표현 되고, 지지형태의 강도가 약하고 수준이 낮을수록 맞받아침으로 표현될 것이다

(6) 지지형태의 수준이 높을수록 “짓눌림”은 가라앉힘으로 표현되고, 낮을수록 맞받아침으로 표현될 것이다

(7) “짓눌림”이 강할수록 맞받아침으로 표현되고, 약할수록 가라앉힘으로 표현 될 것이다.

(8) “짓눌림”이 맞받아침으로 표현 될수록 얽혀매임, 뭉쳐맷힘으로 해결되고, 가라앉힘으로 표현될 수록 누그러짐, 뭉쳐맷힘으로 해결될 것이다.

(9) “짓눌림”이 생성되면 표현전략과 관계없이 뭉쳐맷힘은 남을 것이다

3) 가설적 관계개요

가설적 관계개요(storyline)란 중심현상과 각 범주간의 관계개요를 서술적으로 기술하고 이를 토대로 관계유형을 검증하기 위한 가설적 진술로서, 본 연구

에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폭력가정 청소년의 경험은 “짓눌림”의 생성-표출-변형 과정이다. 가족구성원간의 폭력을 목격하면서 대상자는 ‘위협’을 느낀다 ‘위협’이라고 하는 외부적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대상자는 거칠음 사나움, 몰아침, 맞버림, 쪼들림 등을 경험하면서 생성된 “짓눌림”을 인지한다

생성된 “짓눌림”의 강도는 대상자 가족구성원의 유대정도약 폭력행위자의 폭력양상과의 작용/반작용을 통해서 결정된다 그러므로 대상자가 인지하는 “짓눌림”의 강도에는 차이가 있다

“짓눌림”이 생성되면 대상자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짓눌림”을 표현할 전략을 선택한다 ‘짓눌림’의 강도와 대상자 주변의 지지체계 및 지지형태 등 구조적 상황과의 상호작용 과정은 대상자가 “짓눌림”을 뺏어냄, 빚나감, 내던짐 뿌리침 등의 맞받아침으로 표현하느냐 헤어남, 덮어둠, 기다림 다스림 등의 가라앉힘으로 표현하느냐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

“짓눌림”을 맞받아침으로 표현 하는 경우 대부분은 긍정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부대끼면서 방황하여 “짓눌림”을 생성시킨 상황에 얽혀매이는 결과를 초래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짓눌림”을 자신의 내면에 내재화하여 뭉쳐맷힘의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짓눌림”을 가라앉힘으로 표현 하는 경우, 대상자의 지지체계및 지지형태의 수준, 강도, 성숙도등의 구조적인 상황과의 작용/반작용 과정에 따라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면서 “짓눌림”이 누그러지는 경우도 있고, 전자와 마찬가지로 “짓눌림”이 대상자 자신의 속으로 들어가 내재화가 되어 내면 속에 뭉쳐맷힘 있으면서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기도 한다

어느 경우에나 “짓눌림”은 생성-표출-변형의 과정을 거쳤으며, 뭉쳐맷힘은 “짓눌림”이 어떤 형태로 표출되던지 간에 나타날 수 있는 결과로서 대상자의 대인관계 및 사회적응에 장애요인이 된다

4. 유형분석

유형분석은 자료의 체계화, 관계진술 그리고 가설적 관계개요등의 일련의 자료분석 결과와 근거자료를 지속적으로 비교해 각 범주간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관계를 정형화한 것으로 “짓눌림”의 전개과정을 보여주는 개념적 틀이다

본 연구에서는 “짓눌림”의 강도, 유대의 정도성, 폭력양상의 빈도, 강도, 그리고 지지체계의 성숙도, 지지형태의 수준 및 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4 가지 유형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폭력의 빈도가 잦으면서 강도가 강하여 짓눌림이 강하더라도, 대상자 가족구성원간의 거리가 가까우며 지지형태의 수준이 높고 강도가 강하면서, 지지체계의 성숙도가 높으면 “짓눌림”은 가라앉힘으로 표출되어 서서히 누그러진다(도 2-1 참조)

이 유형에 해당하는 사례는 대상자 1에게서 발견되었다

이 대상자의 경우는 어려서 부터 알코홀중독자 이면서 난폭한 아버지 밑에서 거의 매일같이 “조여름”을 경험해 왔지만 그와같은 환경에서도 이 대상자는 어려서 부터 언니, 오빠들 형제들이 해주는 충고를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생활해오고 영향을 받으며 성장해왔다

항상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앞일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철저히 생각하고 빈틈은 주시 않으면서 스스로 통제를 잘 해나왔다

혼자서 정말 견디어내기 힘든 상황이 되면 이 대상자의 경우는 주위에서 힘이 되어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수녀님을 찾아가 울면서 하소연 하기도 하고, 선생님께 기대고 의지하기도 하는데 이 대상자의 경우는 어려운 상황에서 선생님들께서 너무나 큰 힘이 되어주시면서 자신을 알아주고 이해해주면서 붙들어 주셔서 “짓눌림”의 상황에서도 자신을 잘 다스리면서 지탱할 수 있었고 그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다고 하였다

자신의 노력으로 대학에까지 입학한 대상자는 자신의 고난은 자기가 헤쳐나가기 나름이라고 하면서 환경탓을 하는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말한다 자신은 어떠한 역경이 닥쳐와도 이제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있었다

(2) 폭력의 빈도가 잦으면서 강도가 강하여 짓눌림이 강할때, 대상자 가족 구성원간의 거리가 멀고 지지형태의 수준은 낮으나 강도가 강하면서, 지지체계의 성숙도도 낮으면 “짓눌림”은 맞받아침으로 표출되어 얽혀매인다(도 2-2 참조)

이 유형에 해당하는 사례는 대상자 3에게서 발견되었다.

이 대상자의 경우는 부모님의 잦은 다툼에 대해 짜증을 느끼고 있었으며 짜증나는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대상자는 또래집단과 어울려 유흥장을 다니며 음주와 흡연도 한다 가출도 2회하였고 무단결석도 6회정도 하였다

가족들과는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거의 대화를 하지않고 지내며 자신의 문제나 비밀예기를 친한 친구 두명에게만 이야기한다 그 또래 친구는 서로 통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 두 친구에게만 기대고 의지하였으며 부모님이나 선생님과는 자신의 문제에 대해 일체 의논하지 않았다

학업에 불성실하면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였고 물려다니면서 노는데만 흥미가 있었다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끈기가 없고 집중력이 없어서 실천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뒤늦게 시작했다가 조금 있으면 금방 지겨워 진다고 한다 미래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없었고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것은 라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하는것이라고 하였다

(3) 폭력의 빈도가 잦으면서 강도가 강하여 짓눌림이 강하더라도 대상자 가족 구성원간의 거리가 가까우며 지지형태의 수준이 높고 강도가 강하면서 지지체계의 성숙도가 높아서 “짓눌림”이 가라앉힘으로 표출되어 누그러지더라도 일부는 서서히 멎쳐맷힌다(도 2-3 참조)

이 유형에 해당하는 사례는 대상자 1에게서 발견되었다

이 대상자의 경우는 앞서 유형 (1)에서 보여주었던 이 짓눌림을 가라앉힘으로 표출하면서 누그러짐도 경험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감정이나 충동을 억누르면서 “짓눌림”을 가라앉힘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그 상황이 자신의 내면에 내재화되어 멎쳐맷히는 결과도 초래하였다

멎쳐맷힘은 대상자가 상대방과의 대인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어려움과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있었다.

(4) 폭력의 빈도가 잦으면서 강도가 강하여 짓눌림이 강할때, 대상자 가족 구성원간의 거리가 멀고 지지형태의 수준은 낮으나 강도가 강하면서 지지체계의 성숙도도 낮아서 “짓눌림”이 맞받아침으로 표출되어 얽혀매이더라도 일부는 서서히 멎쳐맷힌다(도 2-4 참조)

이 유형에 해당하는 사례는 대상자 2에게서 발견되었다

이 대상자의 경우는 “저에게 제일 문제는 엄마, 아

“문제예요.” 라고 할 정도로 아버지의 엄마에 대한 구타와 파괴적인 행위로 괴로워하고 있었다

이 대상자는 집에서는 거의 말을 하지 않고 지내며, 학교에서도 그냥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몇명 정도 있기는 한데 중학교때 시권 제일 친한친구 한명에게만 자신의 모든 고민을 털어놓고 의논한다고 하였다

지금의 담임 선생님과 자신의 집안문제 및 친구 문제에 대해서 상담하고 싶는데 막상 담임선생님께서 상담을 하자고 하시면 무슨말을 해야될 지 잘 모르겠다고 하였다

이 대상자는 공부도 잘하고 싶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소 소극적인 태도로 학교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구타공포증으로 인하여 남자선생님을 유별나게 싫어하고 여자선생님만 좋아하여 친구들과 부터 유별난애라는 소리를 듣는다고 하였다

여러친구들과 사귀고 싶고 말도 잘하고 싶는데 자신이 말을 하면 잘 들어주지 않을것 같아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온다고 하였다

남자에 대한 불신감으로 이 다음에 자신이 결혼했을때 남편이 바람을 피우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다

친한 친구 몇명하고만 만나서 함께 놀기도 하고 돌아다니기도 하는데 집안 문제로 마음이 괴로울때는 친구들을 만나서 떠들고 큰소리로 소리지르거나 노래부르기도 하면서 그 상황을 잊어버리려고 한다고 하였다

항상 표정이 냉담하고 무뎠죽하며 차가웠다

V. 논 의

본 연구의 근거자료를 분석한 결과 폭력가정에서 성장하면서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중심현상은 “짓눌림”으로 나타났다. 문 상에서는 근거자료의 분석과정에서 드러난 핵심범주 “짓눌림”과 각 범주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연구에서 나타난 범주들과 이론구성 과정의 특징을 선행연구들과 비교해보고 본 연구의 간호학적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근거자료 분석에 따른 범주 및 개념에 관한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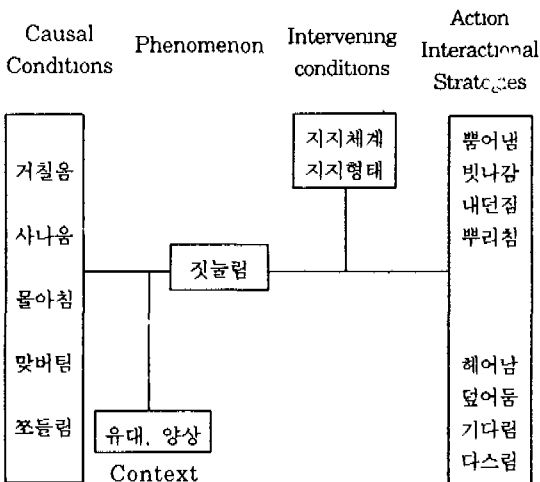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근거자료를 분석한 결과 나타난 5개의 범주 즉 “거칠음”, “사나움”, “몰아침”, “맞버팀”, “쫓들림”은 폭력가정에서 성장하는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짓눌림”의 유발요인으로서의 “위협”에는 가정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양상과 더불어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좌절, 교우관계시 부족한 용돈으로 인한 부당, 언제나 궁핍함에 대한 압박등과 같은 가정의 사회 경제적인 수준도 위협적인 요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폭력가정 연구에 있어서 사회계층은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어지는 변인이라고 한 Steinmetz(1987)의 보고와 교환이론에 입각하여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고 경제적으로 수입이 많으며 교육수준이 높을 수록 폭력을 덜 사용한다고 보고 함으로서 폭력가정에서의 사회계층 차이를 지지한 Goode(1971)의 연구는 폭력가정에서 성장하는 청소년들이 가정내 폭력과 더불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중적인 위협을 겪고 있음을 나타내준다

반면, 우리나라 보고로서 김광일(1985)은 상류층 부인들의 48%이상이 남편으로부터 구타를 당한다고 보고하였는데 이와같은 결과를 우리나라의 경우는 서구와는 달리 병원이나 상담소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류층보다는 중 상류층 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결과에서도 대상자들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환경에서 가정내 폭력으로 많은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나 병원이나 상담소를 이용하는 경우는 한 사례도 없었다

폭력가정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짓눌림”에 폭력양상과 가족구성원간의 유대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폭력양상은 알코올 중독자로서 거의 매일 술에 만



도 1. 폭력 가정 청소년의 경험에 대한 패러디임 모형

취한 상태로 사납고 거칠게 어머니와 식구들을 괴롭히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의심을 하면서 간섭하는 경우, 술을 마시지 않으면 어머니와 식구들에게 잘 해주기도 하는데 한번 숙취 마시면 정신없이 마구 마신후 어머니를 폭행하고 동네 다니면서 행패를 부리는 경우, 경제적으로 무능한 상태에서 어머니에게 수시로 돈을 요구하고 요구대로 해주지 않으면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Elbow(1977)가 제시한 아내학대 증후 네 범주 지배자(Controller)형, 방어자(Defender)형, 승인추구(Approrval Seeker)형, 합동형(Incorporation)과 일치하였다

폭력가정 청소년녀는 폭력을 목격하면서 아버지에게 대한 원망, 증오 및 공포스러운 폭력상황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자신에 대한 무력감과 자신에게 이러한 환경에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짜증과 분노, 동네사람들에 대한 수치심과 모멸감으로 인하여 "짓눌림"이 생성되는것으로 나타났다

생성된 짓눌림의 강도는 가족구성원간의 유대 즉 응집력의 정도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고있었다 이는 청소년들은 주위의 환경적 여건에 따라서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에 적절히 대처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게 되는데 청소년은 가족의 특성에 따라 그 성숙에 영향을 받는다고 한 여러 선행 연구를 통해서 지지된다(Anderson, 1990, Bowerman & Bahr, 1973, Harris & Horward, 1981, Hurlock, 1973 김현수, 1980)

폭력가정 청소년녀들은 주변의 지지체계 및 지지형태에 따라 그들에게 생성된 짓눌림을 표출하는 전략이 다르게 나타났다

고조된 감정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정서에 일관성이 없으며 변화가 심하고 불안정하면서 사건이나 사회적 상황에 대하여 매우 민감해지고 강한 반응을 보이는 시기에 처해 있는 청소년녀들이 가정내에서 폭력행위를 목격하면서 "짓눌림"을 경험할때 절대자, 종교지도자, 스승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경우에는 또래집단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경우보다 자체적인 대처로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 결과 형식적으로 또래집단과의 유대관계도 강하고 의존도도 높은 것으로 보여지는 대상자의 경우에도 사실상 자신의 내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자존심이 상하고 자기를 어떻게 여길까 하

는 두려움으로 친구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않고 숨겼으며,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 보이는 경우에도 정말 믿을 수 있는 친구 한명 정도뿐이었다

대상자들은 이성애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면서 이성친구를 만나기도 하였으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남자에 대한 심한 불신감 및 공포감으로 인하여 이성교제에 어려움을 겪었다 김(1995)은 폭력가정 청소년녀의 이러한 남자기피 현상은 이성교제 및 미래의 결혼생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폭력가정 청소년녀의 이러한 경계적인 태도및 강한 방어벽은 진실된 관계형성에 방해요인이 되었다 그리하여 자신의 고민을 속 시원히 털어놓지 못하고 항상 마음속에 내재화시킨 상태로 심적인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자신을 정말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며 방황할 때 붙들어 줄 수 있는 지지자를 원하였다

이러한 자료분석 결과는 폭력가정 청소년녀에 대한 간호중재에는 대상자 주변의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지지자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제시해준다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에 유해한 영향에 대해 방어적이고, 개인이 받는 스트레스를 중재하거나 또는 완화 시키는 역할을 하는것으로 보고된 연구(Caplan 1974, Cassel, 1976, Dean & Lin 1977)에서도 사회적 활동범위가 넓어진 청소년기에 사회적 욕구를 사회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적 지지로 충족시켜주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해준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결과 "짓눌림"이 '누그러짐'으로 변형된 경우 대상자는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다부진 마음으로 대처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지만 일부는 짓눌림이 마음속에 묻혀뭍혀 있으면서 마음의 상처로 남아 있었다

"짓눌림"이 얽혀매임으로 변형된 경우 대상자는 학교부적응으로 무단결석을 하기도 하고, 학업에 불성실하여 성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희, 음주, 흡연에 빠져들거나 자포자기 한 상태로 역할혼돈 상태에서 방황하고 그 상황에 부대끼면서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폭력가정에서 성장하는 청소년녀들이 경험한 "짓눌림"을 맞받아침으로 표출하여 "짓눌림"이 얽혀매임으로 변형된 경우에는 반사회적인 비행청소년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이러한 결과는 유년

기 동안의 불행한 가정환경이나 비사회적이고 참을성 없는 성격요인등은 학생청소년의 무단결석및 음주와 밀접한 연관이 있고 이들은 학교 생활이 원만하지 못하고 학업성적이 불량하며 학교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고 불규칙적으로 결석을 하며 결석기간 중에는 부모 모르게 집밖에서 즐거운 일에 빠져들어 또래 집단과 어울려 음주를 하고 음주후에는 비행을 행하고 있으며 폭력행위의 대부분은 음주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많은 선행연구에 의해서 지지된다(Blogg 1979. Globetti, 1972. Heath, 1983. Jessor, 1973. Leavitt 1974 Santrock, 1981. Torma & Halsti, 1975 Tyerman, 1968. Watt, 1972. Wechsler & Thum, 1973. Zacune & Hensman, 1971. 김정기외, 1983 이근철외, 1987)

본 연구의 자료분석과정에서 나타나는 "짓눌림"의 해결유형중 관심을 가지게 되는 해결유형 중의 하나가 '몽쳐맷힘'인데, 이는 동료집단과의 거리감및 공감대 결여로 인한 곁들음, 남자거부감및 불신감으로 인해 이성교제시 나타나는 주저함,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안타까움, 어머니에 대한 연민등으로 인한 서운함등이 대상자의 내면에 내재화되어 응어리를 형성하고 있었다. '몽쳐맷힘'은 "짓눌림"을 가라앉힘으로 표출했던지, 맞받아침으로 표출했던지 간에 나타날 수 있는 결과이었다. 폭력가정 청소년들은 이미 청소년기 이전의 발달단계에서 안정되고 풍요로우며 욕구가 충족되는 부모-자녀간의 관계가 손상되어, 가족 환경 내에서 자존심, 경쟁심, 이웃에 대한 관심 그리고 삶에 대한 신뢰감을 증진하는 경험의 장을 제공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여 마음속에 내재화된 '몽쳐맷힘'으로 심적인 부담감을 안고 생활해 나가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 및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폭력가정 청소년이 경험하는 "짓눌림"은 위협으로 인해 발생하는 단선적인 인과관계가 아니라 대상자 가족간의 유대와 대상자에게 보여지는 폭력행위 '양상'이라고 하는 구조적 맥락속에서 중재상황인 '지지형태', '지지체계'에 따라 "짓눌림"의 생성, 표출, 변형과정은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와같은 본 연구의 자료분석 결과는 폭력가정 청소년에 대한 간호중재를 할때에 간호사는 "짓눌림"의

긍정적인 변형을 일차적인 목표로 삼으면서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인격적, 도덕적, 종교적 발달에 대한 전반적인 사정과 함께 보다 포괄적으로 접근하여야 함을 제시해준다

VI. 결 론

본 연구는 폭력가정 청소년의 경험을 이해함으로써 이들을 위한 간호중재에 기여할 실체이론을 개발하고자 시행되었다.

연구의 대상자는 3명의 청소년들로서 연구단체별로 선정된 대상자와의 면담을 통해 근거자료를 수집하였다. 대상자 모두 본 연구자가 직접 면담을 하였고, 대상자의 허락을 받아 면담내용을 녹음하고 녹취록을 작성하여 기록하였다. 면담시간은 2시간 30분 에서 8시간 이었으며, 심층면담 및 관찰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분석은 Strauss & Corbin(1990)이 제시한 근거이론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폭력가정 청소년의 경험에 관한 분석에서 나타난 핵심범주는 "짓눌림"의 변형과정으로 나타났으며 근거자료 분석과정에서 나타난 범주들은 "거칠음", "사나움", "몰아침", "맞버팀", "조들림", "갑갑함", "북받침", "끔찍함", "굳어짐", "맷으짐", "보여짐", "힘이 됨", "이끌림", "뽐어냄", "빚나감", "내던짐", "뿌리침", "헤어남", "뉘어둠", "기다림", "다스림", "변변함", "당해냄", "합쳐짐", "뒤쳐짐", "빠져들", "뒤섞임", "야멸침", "곁들음", "힘들음", "씩여짐", "서운함", "죄여짐", "주저함", "꺼려함" 등 모두 35가지 이었다. 이는 다시 "위협", "짓눌림", "유대", "양상", "지지형태", "지지체계", "맞받아침", "가라앉힘", "누그러짐", "엷혀매임", "몽쳐맷힘" 등의 11가지 상위범주로, 이중 "갑갑함", "북받침", "끔찍함", "굳어짐"은 핵심범주인 "짓눌림"으로 범주화 하였다

폭력가정 청소년의 "짓눌림"은 생성-표출-변형의 과정을 거치고 있었다.

근거자료 분석과정에서 나타난 각 범주들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아홉가지의 가설을 도출할 수 있었다

(1) 대상자가 인식하는 위협의 강도가 클 수록 "짓눌림"이 강해질 것이다.

(2) 가족구성원간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짓눌림"은

가라앉힘으로 표출되고, 멀 수록 맞받아침으로 표출 될것이다

(3) 폭력의 빈도가 드물고 강도가 약할수록 "짓눌림"은 가라앉힘으로 표출되고, 폭력의 빈도가 잦고 강도가 강할수록 "짓눌림"은 맞받아침으로 표출될것이다

(4) 지지체계의 성숙도가 높을수록 "짓눌림"은 가라앉힘으로 표출되고, 낮을 수록 맞받아침으로 표출 될것이다

(5) 지지형태의 강도가 강하고 수준이 높을수록 "짓눌림"은 가라앉힘으로 표출 되고, 지지형태의 강도가 약하고 수준이 낮을수록 맞받아침으로 표출될것이다

(6) 지지형태의 수준이 높을수록 "짓눌림"은 가라 앉힘으로 표출되고, 낮을수록 맞받아침으로 표출될것이다.

(7) "짓눌림"이 강할수록 맞받아침으로 표출되고, 약할수록 가라앉힘으로 표출 될것이다.

(8) "짓눌림"이 맞받아침으로 표출 될수록 얽혀매 임, 뭉쳐맺힘으로 해결되고, 가라앉힘으로 표출될 수 록 누그러짐, 뭉쳐맺힘으로 해결될것이다

(9) "짓눌림"이 생성되면 표출전략과 관계없이 뭉 쳐맺힘은 남을것이다

자료분석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관계유형 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4가지 명제를 확인할 수 있 었다

(1) 폭력의 빈도가 잦으면서 강도가 강하여 짓눌림 이 강하더라도, 대상자 가족구성원간의 거리가 가까 우며 지지형태의 수준이 높고 강도가 강하면서, 지지 체계의 성숙도가 높으면 "짓눌림"은 가라앉힘으로 표 출되어 서서히 누그러진다

(2) 폭력의 빈도가 잦으면서 강도가 강하여 짓눌림 이 강할때, 대상자 가족 구성원간의 거리가 멀고 지지 형태의 수준은 낮으나 강도가 강하면서, 지지체계의 성숙도도 낮으면 "짓눌림"은 맞받아침으로 표출되어 얽혀매인다

(3) 폭력의 빈도가 잦으면서 강도가 강하여 짓눌림 이 강하더라도, 대상자 가족 구성원간의 거리가 가까 우며 지지형태의 수준이 높고 강도가 강하면서, 지지 체계의 성숙도가 높아서 "짓눌림"이 가라앉힘으로 표 출되어 누그러지더라도 일부는 서서히 뭉쳐맺힌다

(4) 폭력의 빈도가 잦으면서 강도가 강하여 짓눌림 이 강할때, 대상자 가족 구성원간의 거리가 멀고 지지 형태의 수준은 낮으나 강도가 강하면서, 지지체계의 성숙도도 낮아서 "짓눌림"이 맞받아침으로 표출되어 얽혀매이더라도 일부는 서서히 뭉쳐맺힌다

대상자 가족구성원간 유대의 정도와 폭력행위자의 폭력양상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짓눌림"의 바람직한 변형을 위해서는 대상자 주변의 지지체계 및 지지형 태가 중요하다

대상자가 견디기 힘든 짓눌림의 상황을 경험할 때 기대고 의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성숙한 지지체 계및 수준 높고 강도가 강한 지지형태가 있는 경우에는 "가라앉힘"으로의 표출을 통해 "짓눌림"이 누그러 짐으로 변형하지만, 일부는 "가라앉힘"으로의 표출을 통해 "짓눌림"이 자신의 내면에 내재화되어 "서운함" "죄여짐", "주저함", "꺼려함" 등으로 변형되어 마음 한 구석에 뭉쳐 맺혀있게 된다 특히 "주저함", "꺼려 함"은 상대방과의 원만한 대인관계의 형성 및 사회적 응을 저해 하는 등 휴유증을 낳기도 한다.

반대의 경우로 대상자가 견디기 힘든 "조여름"의 상 황을 경험하게 될때 기대고 의지해서 도움 받을 수 있 는 지지체계의 성숙도가 낮으며 지지형태의 수준이 낮 고 강도가 약할때에는 "맞받아침"으로의 표출을 통해 해결-기 실패하여 "뒤쳐짐", "빠져들", "뒤섞임" "야멸 침", "걸돌음", "힘들음", "적여짐" 등의 형태로 그 상 황에 얽혀매이는 부정적인 변형을 초래하기도 하고 전 자와 마찬가지로 "짓눌림"의 일부를 자신의 내면에 내 재화하여 뭉쳐맺힘의 결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짓눌림"의 변형에 있어서는 대상자 가족구성원의 유대정도와 더불어 지지체계및 지지형태가 압도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폭력가정 청소년에 대한 간호중재는 대상자 가족과 함께 대상자 주변의 지지체계 및 지지 형태에서 출발해야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짓눌림"은 가라앉힘으로의 표출을 통해서 긍 정적인 누그러짐도 경험하지만 일부는 내재화되어 마음 한구석에 뭉쳐맺혀 있게 되므로 이 점에 유의하여 폭력가정 청소년에 대한 간호중재는 대상자에게 중점 을 두면서 가능한 대상자 주변의 지지체계및 지지형 태의 도움으로 "짓눌림"이 누그러짐으로 변형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및 뭉쳐맺힘이 서서히 풀어질 수 있 는 환경의 조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겠다

참고문헌

- 1 김경희(1995) 폭력가정 청소년의 가족폭력 경험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 김광일(1985) 구타당하는 아내 50예의 정신의학적 연구 정신건강연구 제3집 235-256
- 3 김선남(1994) 청소년비행 관련 변인간의 인과적 분석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4 김정기외(1983) 비행청소년의 범죄 양상과 음주와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중앙 의대지 8(3) 279-287
- 5 김현수(1980) 청소년 가출의 가족역동에 관한 연구 한국의과학 12(3), 203-238
- 6 노치영(1988) 가정폭력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7 박영신 역(허버트 블루머 서)(1990) 사회과학의 상징적 교섭론 민영사
- 8 심재근(1984) 가정내의 폭력과 공격성-아내구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9 이근철외(1987) 청소년 음주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분석 신경정신의학, Vol 26 No 2
- 10 이길홍외(1982) 학생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가정의 심리 풍토 특성과의 관계에 관한 상관분석 신경정신의학, Vol 21 No 4
- 10 이병하(1994) 청소년 비행에 관한 연구-가정환경적 요인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1 Alessi, J J & Hearn, K (1984) Group treatment of children in shelters for battered women In Battered Women and Their Families, Springer New York 49-61
- 12 Andersen, M L 이동원 김미숙 공역(1990) 성의 사회학 이화여자 대학교 출판부
- 13 Blagg, N R (1979) The behavioural treatment of school refusal PhD Thesis, London, University of London
- 14 Bownam, C E & Bahr, S.J (1973) Conjugal power and adolescent identification with parents Sociometry, 36, 366-377
- 15 Caplan & Killilea, M (1974) Support System and Mental Health New York Behavioral Publications
- 16 Carlson, B B (1977) Battered Women and Their Assaultants Social Work, 11, pp 60-455
- 17 Cassel(1976) The Contribution of the Social Environment to Host Resistance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104(2), 107 - 122
- 18 Chenitz C & Swanson, J (1986) From Practice to Grounded Theory Toronto Addison-Wesley
- 19 Dean & Lin(1977) The Stress-Buffering Role of Social Support Problems and Prospects for Systematic Investigation Journal of Nerves and Mental Disease, 165(6), 403-417
- 20 Elbow M (1977) Theoretical consideration of violent marriage Social case work, 58, 515-525
- 21 Emery, R E (1982) Interparental conflict and the children of discord and divorce Psychological Bulletin 92 310 -330
- 22 Globetti G (1972) Problem and non-problem drinking among high school students in abstinence communities Int J Addict, 7, 511-523
- Goode, W J (1971) Force and violence in the Famil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33, pp 637-648
- 23 Hanks S H & Rosenbaum, C P (1977) Battered women A study of woman who live with violent alcohol-abusing men Amer J Orthopsychiat 47, 291-306
- 24 Harris I D & Howard, K I (1981) Perceived parental authority Reasonable and unreasonabl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0, 273-284
- 25 Heath A (1983) The self-concepts of school refusers. London, Ph D Thesis, University of London
- 26 Hetherington, E M Cox, M & Cox R (1979) Play and social interaction in children following divorce Journal of Social Issues, 35, 26-49
- 27 Hilberman E & Munson K (1978) Sixty battered women Victimology 2 460-470
- 28 Hughes H & Barad S (1983) Psychological functioning of children in a battered women's shelter preliminary investigation Amer J Orthopsychiat, 53 pp 525-531
- 29 Hurlock, E B (1973) Transition in family Relationships in Adolescent Development 4th ed McGraw Hill Kogakusha, Ltd, 296 -319
- 30 Jaffe P Wolfe, D, Wilson, S R & Zak, L (1986) Family violence and child adjustment a comparative analysis of girls' and boys' behavioral symptom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3, pp 74-76
- 31 Jessor R & Jessor, S L (1973) Problem drinking in youth, proceedings of the second annual alcoholism conference of the National Institute on Alcohol Abuse and Alcoholism Washington

- DC, DHEW Pub Co
32. Jones, L P (1988) A typology of adolescent runaways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ork*, 5(1), 16-29
 - 33 Leavitt F (1974) *Drugs and behavior* WB Saunders Philadelphia
 - 34 Ledingham, J & Crombie, G.(1988). Promoting the mental health of children and youth a critical review of recent literature *Canada's Mental Health*, 36(1), 9-14
 - 35 Levine M (1975) Interparental violence and its effects on the children A study of 50 families in general practice *Med Sci Law*, 15, 6-172
 - 36 MacEwen, K E & Barling, J (1988) Multiple stressors, violence in the family of origin, and marital aggression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Journal of family Violence* 3(1) 73-87
 - 37 Owens, D J & Strauss, M A (1975) The social structure of violence in childhood and approval of violence as an adult *Aggressive Behavior*, 1 193-211
 - 38 Parker B & Schumaker D (1977) The Battered Wife Syndrome and Violence in the nuclear family of origin A Controlled Pilot Study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67(8), 760-761
 - 39 Porter B & O'Leary R D (1980) Marital discord and childhood behavior problem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 287-295
 - 40 Post, R D Willett, A B Franks, R D & Back, S.M (1981) Childhood exposure to violence among victims and perpetrators of spouse battering *Victimology*, 6, 156-166
 - 41 Rosenbaum A & O'Leary, R D (1981). Children- the unintended victims of family violenc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1, 692-699
 - 42 Rouse, L P (1984) Models self-esteem and locus of control of factors contributing to spouse abuse *Victimology*, 9(1), 130-141
 43. Roy, M (1977) *Battered Women A Psychosociological Study of Domestic Violence* Van Nostrand Reinhold New York
 - 44 Rutter M (1971) Parent child separation - psychological effects on the childre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12, 233-260
 - Santrock J W (1981) *Problems and disturbances in adolescence Drug and Alcohol* Wm C Brown Company Publishers, 548-565
 - 45 Steinmetz, S K (1977) *The Cycle of Violence* A Division of Holt Reinhalt & Winston CBS Inc
 - 46 Strauss A, & Corbin, J.(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s
 - 47 Torma, A & Halsti, A (1975) Factors contributing to school refusal and truancy *Psychiat Fennica*, 75, 209-216
 - 48 Tyerman, M J (1968) *Truancy* London, University of London Press
 - 49 Ulbrich, P & Huber J (1981) Observing Parental Violence Distribution and
 - 50 Effec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3) pp 31-623
 - 51 Walker, L E (1978) Battered Women and learned helplessness *Victimology* 2 525-534
 - 52 Walker, L E (1979) *The Battered Woman* Harper & Row San Francisco
 - 53 Wallerstein, J & Corbin, S (1989) Daughters of divorce report from a ten year follow-up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9(4), 593-604
 - 54 Watt, N F (1972) Longitudinal changes in the social behavior of children hospitalized for schizophrenia as adults *J Nerv Ment Dis*, 155 42-54
 - 55 Wechsler, H & Thum, D (1973) Teen-age drinking drug use and social correlates *QJ Stud Alcohol*, 34, 1220-1227
 - 56 Westra, B & Martin H P (1981) Children of battered women: the relation of child behavior to family violence and maternal stress *Journal of Consulting Clinical Psychology* 53 657-664
 - 57 Zacune J & Hensman C (1971) *Drug Alcohol and Tobacco in Britain* London Heinemann
 - 58 Zaslów, M J (1988) Sex differences in children's response to parental divorce research methodology and post divorce family form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8(3), 355-378
 - 59 Zaslów, M J (1989) Sex differences in children's response to parental divorce samples variables ages and source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9(1) 118-141